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 요소 연구

이영주*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e-mail:yjlee@chungwoon.ac.kr

Study of Style Guide Elements for Building Design System

Young-Ju Lee*

*Dept. of Multimedia,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필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의 코어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브랜드 시스템 그리고 제품 시스템과 함께 시각적 요소인 스타일 가이드는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로 할 수 있다. 이에 스타일 가이드는 첫째, 기업과 서비스를 대표하는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제목, 본문 등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치집이 필요하다. 셋째, 브랜드의 보이스턴과 무드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이미지 요소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탐색의 접점이 되는 컴포넌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각 디바이스의 OS에 따라 구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스타일 가이드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전 구성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동기화하여 공유되어야 한다.

1. 서론

전 세계기업들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디자인팀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더 높은 품질을 더 빨리 제공해야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쉽게 확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컬러, 타이포그래피, 패턴, 코드 표준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이디어 불일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보다 빠르고 일관된 제품 개발을 위해 에어비앤비, 우버, 소피파이와 같은 거대 기업은 디자인 시스템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 개발의 단계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프로세스는 물론 브랜드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 시스템은 내 외부 관계자들, 특히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자 모듈식 툴킷의 형태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관된 경험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과 코드를 동기화 한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스타일 가이드

를 필요로 한다. 스타일 가이드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며 작업 시간을 절감해 기업의 예산과 비용을 절약해 준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 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스타일 가이드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디자인 시스템과 스타일 가이드

디자인 시스템이란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성되어 공유되는 규칙적인 언어를 말한다. 디자인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디자인과 시스템의 조합어로 일관되게 구성된 일련의 패턴을 우리는 디자인, 그에 따라 제공되는 패턴의 공유된 규칙을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스타일 가이드의 UI패턴이나 시각적인 컴포넌트들의 구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디자인 시스템은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로고의 사용 방법, 그래픽 요소 및 패턴을 어떤 매체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응용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모

든 브랜드 에셋에 대한 최적의 크기와 공간을 정의하여 제공된다. 스타일 가이드는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패턴 라이브러리에 브랜드의 목소리, 코드, 이미지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서비스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정의하고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패턴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3. 스타일 가이드의 구성요소

스타일 가이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서비스를 구축하는 동안 참여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타일 가이드를 구축하면 필요한 에셋을 빠르게 찾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체, 컬러, 및 그래픽 에셋을 사용하고 브랜드 톤에 맞는 문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방향이 추구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점이 있다. 스타일 가이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3.1 컬러 시스템

우리가 네이버를 생각하면 그린 색상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디자인 시스템 구축에서 브랜드의 일관성에 가장 큰 시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컬러이다. 이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컬러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감정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프라이머리 컬러의 선택이 중요하며 컬러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프라이머리 컬러를 선정 할 때는 브랜드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좋으며 브랜드 속성과 관련된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를 정의해야한다. 이렇게 결정된 컬러는 사용자의 맥락을 고려하여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3.2 타이포그래피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 생성에 있어 모든 디자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부분인 컬러와 함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가이드 지침을 만들어두어야 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88%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11%가 아이폰을 사용하는 만큼 안드로이드의 로보토 서체와 애플의 샌프란시스코 서체는 시스템 서체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타이포그래피는 웹, 모바일, 태블릿 등 각 디바이스의 크기를 고려해야하고 브랜드 전체의 보이스트론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카피의 형식과 구조에 맞는 서체를 잘 선택해야 한다. H1, H2, H3과 같은 타이틀 제목의 크기를 지정하여 타이포그래피의 계층 구조를 표준화 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자간, 행간의 구성도 주요한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브랜드의 보이스트론 유지를 위한 레이블링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CTA와 같은 버튼의 사용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경험을 높이며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3 이미지

브랜드의 정체성은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 시각적 요소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톤앤 매너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자와의 소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템플릿 이미지는 모드보드로 활용하고 서비스의 특징적인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면 좋다.

3.4 컴포넌트

스타일 가이드에서 UI패턴으로 구성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부분은 바로 컴포넌트이지만 컴포넌트 구성을 간과하고 빠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 OS에 따라 컴포넌트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침과 명칭을 레이블링 하고 계층화 해둘 필요도 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컴포넌트는 당연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컴포넌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설계된 의미를 단순히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접점이기 때문에 기능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

3.5 기타

스타일 가이드의 핵심 구성 요소의 제작에 있어 각 디바이스의 OS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88%가 안드로이드, 11%가 iOS를 사용하는 만큼 두 개의 OS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디자인 시스템 제작 프로세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스타일 가이드에 적용될 요소가 확립되었다면 그에 따른 실행 가능한 스타일 라이브러리 생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타이포그래피와 컬러 팔레트의 제작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두 번째로는 실행 가능한 자산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것이다. 로고, 승인된 이미지, 아이콘 라이브러리 등을 일관성 있게 제작하여 디자인 시스템 및 전체 구성원과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실행 가능한 패턴 라이브러리의 생성이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이포그래피나 컬러 만큼이나 거의 모

든 페이지에 사용되는 부분은 컴포넌트이다.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점의 역할을 하며 여러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로 이 역시 라이브러리화 하여 내부 구성원들과 동일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작하고 동기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를 위한 문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모든 요소에 코드를 포함한 문서의 추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문서는 단순히 참조의 수준이 아닌 실행 가능한 문서여야 하며 디자인 시스템에서 가져온 전체 마크업, 이름, 자바 스크립트 구성요도 등이 포함된다.

5. 결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한때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시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절감된다는 것이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 요소인 스타일 가이드의 코어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타일 가이드의 코어 구성 요소는 각 디바이스의 OS를 고려한 컬러,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또 이렇게 구축된 스타일 가이드는 디자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 타 요소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기화하여 모든 구성원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Blokdyk, Gerardus, "Design Systems A Complete Guide", 5starcooks, pp. 35-42, 10월, 2019년.
- [2] Vesselov, Sarrah, "Building Design Systems: Unify User Experiences Through a Shared Design Language", Apress, pp. 57-88, 7월, 2019년.
- [3] Ahmad Taher Azar, "Design,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Renewable Energy Systems", Elsevier, pp. 11-17, 9월, 2019년.